

[ 종교·복지 ]

장애인 정보화 대제전  
광주 지역 대표선수 선발

(사)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대표 이종복)가 오는 25일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에서 '제6회 전국장애인정보화 대제전, make a job-장애 청년, IT로 날다'(주최 보건복지부)에 참가할 광주 지역 선수를 선발한다.

참가 자격은 만 19~35세의 IT활용능력 수준을 갖춘 광주시 등록 장애인으로 기본 프로그램 2개 이상, 전문프로그램 1개 등 3종목 이상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19일까지 참가지원서와 사진, 주민등록사본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부등을 첨부해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된다. 문의 062-368-6676~9, http://www.welfarezone.or.kr

이웃돕기 '달피한마당'

오월 동시대 종합사회복지관

동시대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정남)이 주최하는 제2회 '달피한마당'이 12일 오후 1시부터 동시대종합사회복지관 잔디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아나바다 장터', '떡거리 장터', 문화공연인 '세대공감' 등으로 진행된다. 수익금은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위한 냉장고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종교간대화학회

전남대서 '학술대회'

한국종교간대화학회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남대학교 국제 회의동 융복합 제1 세미나실에서 '2006년 춘계 학술대회'(주관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를 개최한다.

'영성과 명상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 지은숙(동화사 강주)이 기조강연을 한다. 문의 062-530-2400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원어민강사 양성교육' 주도한 곡성성당 윤빈호신부

“비이주여성 대부분 고학력자  
영어교사로 한국 정착 돕겠다”



전남대·곡성군 함께 운영... 내달 27일까지 25명 교육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돼서 너무 기쁘요, 열심히 할게요.”

지난 9일 곡성군청에서 열린 '외국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교육'개강식에 참석한 필리핀 출신의 비비안 버나우(37)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투른 한국어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묻어나왔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25명의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과 곡성군, 곡성성당이 함께 진행하는 원어민 강사교육은 7주(60시간)간의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을 영어보조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여성에게는 영어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고 농촌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다.

앞으로 이주여성들은 6월 27일까지 곡성성당내의 강의실에서 전남대 언어교육원의 강사들을 통해 표준영어 발음법과 교육 이론, 한국의 학교 문화 등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특히 이들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수업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곡성성당 주임 윤빈호 신부의 얼굴도 밝았다. 그동안 곡성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들의 정착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원어민 강사 양성 교육은 윤신부의 '작품'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3년 독일 유학을 마친

고 곡성본당으로 부임한 윤 신부는 신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던 중 수많은 '외국인'들과 마주쳤다.

“한국에, 그것도 농촌 지역에 외국인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에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결혼 이민 여성들이더군요. 그러나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의사소통과 문화차이로 인해 부부간·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주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윤신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교실'이다. 직접 강사로 나서기도 하면서 이주여성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대졸 출신의 고학력자인데다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영어 교사 양성'계획을 세웠다. 곡성군청과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작게 시작한 일이 커지게 돼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는 윤 신부.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소외계층 지원 유공자로 선정된 윤신부는 오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에서 여성 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윤신부와 곡성군은 앞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교육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 결혼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은 광주 1천 700여명, 전남2천3여명(1월 말 기준) 등 모두 4천여명에 이른다.



9일부터 곡성군청에서 시작된 '외국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교육'에 참가한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종교칼럼



여연님

일지(一枝)의 숲, 5월의 숨결은 초록으로 숨이 막힌다.

바람에 뒤집어지는 살갗 잎새들이 피어 내는 수뉘(물결이 파지는 모양)의 꽃 향기, 올리브 빛 숲에서 지지귀는 온갖 산새 소리들, 물안개를 안고 흐르는 계곡 물소리, 그것들이 뿜어내는 눈부신 광선들, 이 모두가 무도화의 축제다.

5월의 사물들이 쏟아지는 뒬뒬거리는 빗속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탄생일의 연등축제가 있었고 함께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이 있었다. 머지않아 스승의 날도 다가온다.

이 모두가 축제의 날이 아니고 무엇이라. 어린이 날에는 우리의 미래의 씨앗들, 그 생명의 눈부심을 위해 잘 가꾸어 주는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야겠고, 스승의 날에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준 그분들에게 사랑의 은혜는 흠뻑 베풀어 드려야 한다.

사랑 전하는 5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깊고 넓은 생명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연등을 켜고 우리의 어린이에게 사랑을 주고, 스승님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버이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축제의 날에 정말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그들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조그마한 사랑의 화합, 그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는 어둠 뿐이다.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무려 14억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 1달러로 가냘픈 목숨을 살날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어찌할 것인가. 그중에 9억 인구는 아시아에 몰려 있다고 한다.

온갖 만물들이 뿜어내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5월. 하지만 지구 어디에선가 14억 생명의 불씨가 바람앞에 나부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이율배반적인가. 소외된 그들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반딧불 같은 불빛이라도 비추어 줘야 할 때다. (일지연암주)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백화점. 062-222-1510

공무원 직장인 신용(담보)대출. 금액: 200만원~1억. 금리: 5.5%~12%. APT 추가대출 시세 80%까지 가능. 대한대출 1544-1731

어버이날 효도선물은... 전립선 銀 J2V. 전립선이란 남성의 중요한 생식기관으로서 배뇨와 성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2V 의리기 사용 후 불만족 시 30일내 반품가능.

각내영교육학. 2007년도 수강생 전원 합격률 목표하는 강의로. 위재권 초등교육과정. 062-529-0090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5/8~6/30). 재/직/자/환/급/과/정.

공무원 이론반 5월달 첫진도. 최고의 교재. 무등고시학원. 222-4560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전국 수석 승은 명단 96.7.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227-8003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현대고시학원내 3층). 224-4560, 225-7200

김영대학편입학원. 5월 1일 개강. 227-8088